

“선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서울시 강서구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 가족(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승선할 때마다 건강검사를 받게되는 선원들과는 달리 특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진 해원의보는 여유있는 재원을 이용하여 전국 각 시도에서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피부양자 17,000여명을 대상으로 건협외의 이동검진버스를 활용해 검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조합원 가족의 주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이번 사업은 검사대상자들의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정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는 관할 보건소나 구청 등에 검진버스가 현지 출장해 구역내의 주민들을 1차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화곡동 강서구청에서 실시

기자는 이번 건강검사사업의 첫 테이프를 끊은 서울지부 이동 검사팀을 따라 강서구 내 선원가족의 검사현장인 강서구청을 찾아가 그들의 검사과정, 호응도 등을 지켜봤다.

정확하고 성실한 검사를 다짐한다

유난히도 많은 비를 쏟아 부었던 하늘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파아랗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새하얀 구름무늬를 자랑스러이 내보이면서.

전국에서 맨처음으로 해원의료보험조합의 피부양자 건강검사를 시작하는 이날, 서울지부 건강검사팀은 이른 아침 출발하면서부터 가슴 속으로 다짐을 한다. 보다 정확하고 더더욱 성실한 검사를 하리라. 그리하여 수많은 선원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리라.

검시종목은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부터

『이번 검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합니다. 그 시간 내에 아무때나 오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서울지부 남서중 사업과장의 말처럼 검사팀은 도착하자마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차내에 여러가지 검사기구를 진열하고, X-Ray기를 점검하는가 하면, 차 앞에는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검사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배치하기도 했다. 그들은 바쁘게 그러나 조금도 서툴지 않게 정확히 움직여 나갔다.

『전국적으로 공히 검사종목은 기초검사, X-Ray검사, 간염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등 총 40여개의 종목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다른 종목의 검사를 원할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서중 과장의 검사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 주 대상이 주부들이었기 때문인지 자궁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기도 했다.

검사자들의 대부분이 주부

얼마쯤의 시간이 지난 후 검사대상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또한 검사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나온 해원의보의 지도부장 丁海烈씨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검사팀을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서구 보건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했다.

피부양자들은 의료보험카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해원의보에서 미리 배부한 검사의뢰서 등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

거의 대부분이 피보험자들의 부인이었다.

특히 자궁암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

접수를 하는 도중 여러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고갔다.

『이 검사에서 알아낼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죠?』

『신장, 심장 기능, 간암, 동맥경화, 뇌졸중, 당뇨병, B형간염, 폐질환 등 요즈음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들 입니다』

『검사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20~3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검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통보해 드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으신 경우는 재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검사의뢰서에 나열된 항목들 중 이번 무료건강검사에서 제외된 자궁암, 심전도 검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주 대상이 주부들이었기 때문인지 자궁암 검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자궁암검사는 어떻게 받죠?』

『저희는 자가채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실 분이 설명대로 직접 편안하게 채취하셔서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자궁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때문인지 그들은 이 자궁암 검사에 많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이런 건강검사가 우리 선원가족을 위해 계속되었으면...

접수를 마친 후 검진버스에 오르면 일단 채혈을 하게 된다. 그다음으로 소변을 받고 X-Ray촬영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외의 검사는 별도로 칸막이가 된방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다.

『애들 아버지는 항상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야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조합에서 여유있는 재원으로 가족을 위한 무료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뻐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아니겠어요? 결과만 정확하게 나오고, 여력만 된다면 계속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강서구 목동에 거주하는 김영희씨와 화곡동의 윤정이씨의 검사에 대한 반응이다.

이젠 치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지요

사업계획을 세운 해원의보에서는 도시보다도 도서산간벽지에 더 많이 퍼져있는 선원가족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했고, 치료가 목적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검사에



◀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선원가족의 편익과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가 이번 사업에 고려된 점들이다.

관해 생각해야 했다. 물론 조합 재정적 측면에서 가능한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다양한 문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관을 찾던 끝에 이동검진버스가

있어 전국을 카바할 수 있고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 건협을 선택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해원의보는 보다 적극적인 검사참여를 유도키 위해 자체에서 안 내팜프렛을 제작해 각 가정으로 우송하기도 하는 등 선원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을 진정한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정착 시켜야지요

丁海烈지도부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번에 검사대상을 35세에서 50세로 국한시켰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시기가 성인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올해 대상자들의 호응도를 검토해 봐서 그 외의 연령층까지 검사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선원들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또 『이번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건협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협의 좋은 사업내용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건강을 지키는 과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해 건협 직원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검사자들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건협서울지부 남서중 사업과장은 『이번 검사기간 내에 미처 검사를 받지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2차 검사기간을 설정해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구요.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요』라면서 모든 일에 책임감있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국민건강 정착을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

오후 5시를 조금 넘은 시간 검사팀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철수준비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그들은 앞으로 남은 반이 그렇게 희망적일 수 없단다. 『도시는 그래도 안정된 지역이지요. 문제는 도서산간벽지에 퍼져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할텐데...』라는 어느 해원의보의 관계자의 말을 떠올리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음을 새삼스러이 느낄 수 있었다. (이 은희 글)